

생리적으로 조정된 선발의 원칙으로서 이해한다.

인간의 산물들이 더 이상 인간에 의존하지 않는 것 같은 “제 2의 자연”으로 “外化되어 버렸다”고 여기는 물화의식은 자본주의적 분업사회의 구성인자로서의 노동자와 자신의 자유 처분권밖에 있는 노동산물간의 외화를 지적해주는 한, 리얼리즘적 진리내용을 소유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해방적 참여의 전제조건이 되는 하나의 인식을 숨기고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매년 기존적인 사회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19세기의 역사적 사고에서 수련을 받은 이데올로기비평가들이 모든 사회적 현상들의 상대성과 역사적 피제약성을 거듭 힘주어 고집하고 있는 점은 실로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은 모두가 변화과정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는 초시간성과 자연의 제약성에 대한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혐의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들의 불변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이로써 그 현상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태도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증의 맥락에서는 특히 20세기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의 권역에서 만날 수 있는 부정적 인간 경험들, 예컨대 불안, 죄, “被投性”, “비정착성”, 부조리 등을 인간실존의 기본상황성으로서 존재론화하고 있는 문제가 이데올로기비판이 선호하는 대상이다. 이를테면 실존적 고통의 경험과 위기경험이 사회적으로 제약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적 현존재의 무조건적인 구성성분으로 양식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그러한 비판의 한 예이다.³⁷⁾

4. 6. 구성적 인자에 반하는 부정주의적·절망적·무전망적 인자

주로 통속화된 고전주의적 미학의 권역에서 나온 美文學에 정향된 문예학적 이데올로기 비판은 대체로 부정적, “비관주의적”, 반미학적, 반고전주의적 문학——독일어권에서는 이것이 대강 표현주의(1910) 이래로 거듭해서 소위 “고급”문학에 대한 특징이 되고 있는 터인데——과 관계할 경우, 당황하거나 무지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이 문학이 실존적인 결손 경험들을 존재론화하지 않고 사회에서 받는 고통으로서 비판적으로 표출시킬 때 더더욱 그러하다. 반시민적이긴 하지만 역시 부르주아 출신인 지식인들의 예술로부터는 긍정적 유토 피아도 또한 보상적 제시물도 유도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스스로 이데올로기비판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고전주의적 모범에 정향된 문학의 아름다운 가상에 반대하여 이제 醜美의 “진리”를 거기에 맞세우거나——다다이즘의 권역에서는——전통적 문학의 의미제공과 마주해서 도전적인 의미파괴를 그것에 대치시킨다. 이데올로기비평가들은 특히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을 통해 대변되고 있다고 보

37) 예컨대 뉘텐마트의 반탐정소설 《Der Richter und sein Henker》에 관한 Waldmann(1973): Theorie und Didaktik der Trivialliteratur. München, p.37ff. 참조.

는 이런 유형의 문학에 대해 각기 상이한 판단을 내린 것은 사실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보상적인 행복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유토피아적이지도 복고적이지도 않으며, 현실을 미화하지도 물화하지도 않는 문학이 평가절하될 수가 있는 건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정통적 구상에 정향된 이데올로기비판 내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논증한다. 즉 그러한 문학은 사회의 제관계를 혁명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반대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전망적이며”, 따라서 생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우어 Gerhard Bauer는 예컨대 “사적 유토피론적” 요구로써 카프카의 작품속에 표출된 부정적 경험들을 카프카 자신이 프라하의 노동산재보험회사의 한 직원으로서 “계급투쟁을 단지 그 고통의 측면에서만, 즉 산업이나 행정의 희생자의 관점에서만” 체험한 그의 “소시민적 계급상황”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³⁸⁾ 그에 의하면 카프카의 경우에는 “다소간은 악마적이지만 그러나 엄청난 정도로 탁월하며, 따라서 불가침적인 어떤 힘에 맞서서 유별난 고통의 자세가, 즉 원칙적인 무기력이” 발전했는데, 이를 그의 작품이 그에 상응하게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루카치도³⁹⁾ 카프카뿐 아니라 또한 카프카의 동시대적인 표현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와 유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인간의 “상실과 그것에 대한 절망”의 묘사 속에는 직접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에 의해 야기된 그들의 소시민적 절망감과 상실감, 자본주의에 의해 마구 짓밟혀 붕괴되는 데 대한 소시민들의 무기력한 항거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⁴⁰⁾ 반면에 “리얼리즘적” 문학은 항시 얼마간은 소외의 극복이나 해체에 관계하며, 따라서 사회적 연관관계의 정체규명에 몰두한다고 주장된다. 물론 카프카의 작품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환영에 갇혀있는 어떤 한 상황이 표출되고 있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따라서 프루스트, 조이스, 베케트 또는 로브-그리에 같은 “후기시민사회의 퇴폐적” 작가들 역시 그런 시각에서 볼 경우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는 오직 “확실한 전망의 상실”과 “자본주의의 객관적 무전망성의 표현”으로서 “시민적 이데올로기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⁴¹⁾

하지만 여기서 적용된 가치평가기준들에 대한 견해는 좌익진영의 문학비평 내에서도 현격하게 엇갈렸고 또 최근까지도 그랬었다. 자신의 사후에 출간된 《미학이론》을 사무엘 베케트에 헌정하고자 한 아도르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올바른 의식은 예술작품 속에서 무엇보다도 “궁핍의 의식”으로서, “누적된 고통의 기억”으로서 문서화된다는 것이다.⁴²⁾ 그래

38) G. Bauer(1972): “Nochmals: historisch-materialistische Literaturwissenschaft, mit Kafka als Zeugen für den Klassenkampf”, in: alternative 15, H. 84/85, pp. 102-111, p. 105.

39) Lukács(1958): “Franz Kafka oder Thomas Mann?”, in: G.L.: Wider den mißverstandenen Realismus, Hamburg, pp. 49-96.

40) Lukács(1934): p. 138f.

41) Pracht/Neubert(1970): Sozialistischer Realismus. Berlin(Ost), p. 21.

42) Adorno(1974), p. 309, p. 387.

서 카프카로 말한다면 1963년 프라하 카프카 회의에서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 가로디 Roger Garaudy는 정통파가 “수정주의적”이라고 매도한 카프카 류의 문학에 대해 일종의 옹호론을 폈던 것이다.⁴³⁾ 이는 실로 문학으로서는 충족시키기가 어렵지만 한 요구들을 사회의식쪽에 제시하는 특정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구상에 대립하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5. 이데올로기비판에 대한 비판적 관점

문학작품이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만 하고 또 하나의 특정 시기나 하나의 특정 민족의 역사적 궤도만을 스케치하여 그것의 기본경향들과 미래적 전망들을 표현해야만 한다는 요구를 리얼리즘의 이름으로 제기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철학적 요구이지 미학적 요구일 수는 없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에 인간이 세계와 갖는 관계에 관해서 극히 불완전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 작가의 특권이다. 그는 따라서 꼭 철학이나 역사가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주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훌륭하고도 때에 따라서는 숭고하기조차 한 예술성을 드러내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한 작가란 예컨대 소외의 이런 저런 국면들을 자기나름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즉 그는 소외의 원인과 그 극복방법들을 발견해내지는 못하면서도 역시 위대한 작가일 수 있음은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문학사적, 수용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처럼 작가지향적이고 텍스트지향적 관점으로부터 수용지향적 관점에 그리고 급기야는 의사소통지향적 관점에 이르는 문예학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방법비판적 의식을 이제는 이데올로기비판도 역시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류의 이데올로기비판은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별해야할 과제도 갖는다. 즉 그것이 작가의 의식 내지 작가에 의해 대변된 계급의식, 계층의식 또는 집단의식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텍스트인지 또는 텍스트수용의 이데올로기함의 성인지를 구분해야만 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관한 한, 텍스트를 통해 의식적으로 의도된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 즉 명시적 이데올로기와 전제된 이데올로기를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비판은 이를 초월해서 또한 자신의 대상과 자기고유의 입장이 지닌 역사성도 함께 천착해야만 한다.

문학텍스트가 때에 따라서는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정치사회적 견해에 반하는 입장을 매개한다는 사실은 엥겔스에 의해 자극받은 루카치의 발자크연구 이래로 이데올로기비판적 논증형식의 확고한 구성성분이 되고 있다. 위대한 작품에서는 리얼리즘이 “작가의 견해도

43) R. Garaudy(1969): “Kafka, die moderne Kunst und wir”, Nachdruck in: Raddatz(1969): *Marxismus und Literatur*, Reinbek b. Hamburg, Bd. 3, p.211.

불구하고 다르게 발현될”⁴⁴⁾ 수도 있다고 1888년 엥겔스가 하크니스 양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밝힌 명제를 루카치가 나중에 수용하여 작가 자신이 지녔던 긍정적인 정치적 입장과 그리고 그의 소설들이 지닌 부르주아비판 내지 자본주의비판간의 모순을 드러내는 데 응용한 시도는 유명하다.⁴⁵⁾ 이 논증방식을 통해 루카치는 토마스 만의 작품도 높이 평가할 수 있었던 반면에, 표현주의는 그것이 지닌 극도로 사회비판적 자기이해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변호를 단지 현재의 비판형식으로서 위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매도했던 것이다.⁴⁶⁾

작가의 ‘주관적’ 의도가 작가의 문학적이거나 비문학적 언표들의 ‘객관적’ 의미에 무조건적으로는 상응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이데올로기비판적 실천에 있어서 해석자가 자기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특징적인 거리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이 거리는 작가의 도를 단순히 재구성하려는 시도나 노력 또는 텍스트와 자신을 시험적으로 동일시하는 작가진술의 추수행을 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준해서 아펠 K.-O. Apel은 이데올로기비판가의 역할을 정신분석학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비교한 적이 있다.⁴⁷⁾ 그 의사는 환자의 언표들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하지만, 또한 언제나 반복해서 이 언표를 경험과학의 범주로써 거리를 두고 설명하고 추궁하기 위해 이해의 노력을 중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처리방식은 특히 병리적 징후들이(이념소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도 않은 채 주체의 언표 속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역시 주체에 의해 의도된 것을 등한시함으로써만 합당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데올로기비판적 실천은 무엇보다도 “고급문학”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데, 이는 이데올로기비판이 자주 주체의 이해과정을 너무 일찍 중단하고 텍스트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작가의도를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가볍게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해석가설에 대한 중요한 수정가능성을 앗아버리기 때문이다. 작가의 자기이해를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은 자기기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자는 텍스트에 대해 부적절하고 ‘몰이해적으로’ 될 수 있는 제의미와 기능을 그 텍스트의 속성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이데올로기비판은 역시 자주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바,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한정된 문제제기로써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텍스트의미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 의

44) Fr. Engels가 Margaret Harkness 양에게 보낸 1888년 4월자 편지, in: Marx/Engels(1967): *Über Kunst und Literatur*, 2Bde., Berlin(Ost), Bd. I, pp.157-159.

45) Lukács(1940): “Balzac und der französische Realismus”, Nachdruck in: G.L.: *Der historische Roman*, Werke, Bd. 6, Neuwied/Berlin, pp.431-521.

46) 특히 이에 대해서는 Lukács, “Es geht um den Realismus”(1938), in: Lukács(1971), pp.313-343와 Lukács(1934), p.115 참조.

47) K.-O. Apel(1971): “Szientistik, Hermeneutik, Ideologiekritik. Entwurf einer Wissenschaftslehre in erkenntnisanthropologischer Sicht”, in: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1971), pp.7-44.

미들을 극히 제한된 수의 범주로써 기술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텍스트의 의미복합성을 축소시키게 되는데, 그 방식은 환자의 아주 다양한 경험보고를 의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단 한 가지의 기본의미로 환원시키는 정신분석가의 방식에 상응한다. 이처럼 정통 이데올로기비판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술작품은 결국 모두가 계급갈등의 표현이 되며, 이때 그것은 모든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기본의미, 즉 “긍정적” 의미와 “해방적” 의미만을 지니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이데올로기 함의성과 그것의 수용 간의 분화이다. “해방적” 문학이라도 수용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수취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우 애호되었던 이데올로기비판적 수용연구는 이를 여러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시도한 바 있다.⁴⁸⁾ 대부분 그러한 연구들은 한 작품에 자신의 동시대적이거나 특히 후대의 수용에 의해서도 역시 귀속되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자주 비이데올로기적이었던 “본원적인”, “참된”, “원천적인” 의미와 대결시킨다. 허위의식의 비판으로서 이데올로기비판은 이 경우 한 작품의 그릇된 수용에 대한 비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전에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작가들(예컨대 쉴러, 훔덜린, 하이네 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해서 수용하는 것은 이 경우 흔히 그들의 작품을 그 생성의 콘텍스트로부터 분리시켜 그것을 수용자의 당면적 콘텍스트에 “비역사적으로” 전이시키는 일에 환원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콘텍스트와 관련시켜 논증하는 그런 류의 가치평가실천은 이미 수용연구 이전의 이데올로기비판에서는 자명한 것이었다. 언제나 반복해서 이데올로기비판은 원천적으로는 해방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사고형식이 변화된 역사적 조건하에서 어떻게 이데올로기적 사고형식으로 돌변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이 논증방식은 대체로 시민계급의 역사적 역할에 관한 진술과 결부되어 있다. 이 시민계급은 18세기만 해도 귀족의 지배로부터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통해 역시 진보적으로 평가되었겠지만 반면에 19세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승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들에 대해 점차 방어적이 되고 자신들이 획득한 특권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이데올로기비판의 “고전적” 저술이 되어버린 마르쿠제의 논문 《문화의 긍정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 사고과정을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고 있다.

“상승하는 시민집단은 새로운 사회적 자유에 대한 요구의 근거를 보편적 인간이성을 통해 구축했다. 神이 설정했다는 진보해적 질서의 영원성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진보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대치시켰다. 그러나 이성과 자유는 점점 더 인간 대부분의 이익에 대립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초월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고반하는 물음에 대해서 시민계급은 단호히 대답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 문화였던 것이다. 이 문화는 본질적으로 관념주의적이다. 고립된 개인의 곤

48) G. Grimm(1974): “Rezeptionsforschung als Ideologiekritik. Aspekt zur Rezeption Lessings in Deutschland”, in: Über Literatur und Geschichte. Fs. G. Storz, hg.v. B. Hüppauf/D. Sternberger, Frankfurt a.M., pp. 115-150.

경에 대해 이 문화는 보편적 인간성으로써, 육체적 비참함에 대해서는 영혼의 아름다움으로써, 외적 노예성에 대해서는 내적 자유로써, 또 무자비한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의무라는 미덕의 제국으로써 응답한다. 新사회의 투쟁적인 상승의 시대에는 이 모든 관념들이 현존재가 달성한 조직을 초월하는 진보적 성격을 지녔지만, 시민제급의 지배가 안정화되면서부터 그것들은 점증적으로 불만족한 대중을 억압하면서 단순히 자기격상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봉사하게 된다. 즉 그 이념들은 개인의 육체적 심리적 위축들을 은폐시키는 것이다.”⁴⁹⁾

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의 가치평가가 비역사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문화적 현상들의 역사성에 대한 통찰을 하나의 가치평가기준으로 만들었다. 나아가 그것은 사적 유물론의 전통에 의거해서 문학을 현실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인간의 의식(“상부구조”)을 존재(경제적 “토대”)에 결부시키고 또 이데올로기를 작가와 수용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련지음으로써 우선 이데올로기비판적으로 경향되지 않은 문예학에도 중요한 자극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문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사회사적 경향은 이데올로기비판이 없었다면 거의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비판이 비교적 넓은 지식사회학과 공유하는 방법사적 결합은 그것이 “문학”을 “사회적 현실”에 관련지우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통한 이데올로기의 의사소통적 매개과정을 대체로 간과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이 매개과정 자체는 작가와 독자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과정으로서 분석되고 비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비판이 아직도 넓은 토대-상부구조의 도식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자신의 이데올로기개념을 대화이론적으로나 의사소통론적으로 기초할 수 없는 한, 그것은 문예학의 보다 발전적인 의사소통미학적 단초에 적절히 접맥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버마스의 이데올로기이론과 의사소통행위이론이 여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은 앞에서 암시된 바와 같다.

아겔과 하버마스가 가다머의 해석학⁵⁰⁾과 논전을 펼 때 적용한 특정 이데올로기개념은 이해와 설명의 정신분석학적 구상에 의거해서 언어적으로 표현된 허위의식을 (병적으로 왜곡된 언표에 유추해서) 지배에 의해서 제약되는 강제 의 산물이라고 해석한다. 이때 인간적 욕구에 대한 요구를 개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회적 의사소통에 의해서 방해 받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의사소통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에 의해 왜곡된 의사소통은 욕구표현들을 단지 조작되고 은폐된, 사회적으로 허용된 형식으로서만 용납하고 그것의 진리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 구상에서 “진리”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예컨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점

49) H. Marcuse(1965): “Über den affirmativen Charakter der Kultur”, in: H.M.: Kultur und Gesellschaft I, Frankfurt a.M., pp.56-101, p.66.

50)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1971).

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정된 존재론적 단위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강제가 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로서 형성되어 나온 진술의 복합체요 표상의 복합체로서 정의되고 있다.⁵¹⁾

이상에서 요약된 이 구상은 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의 두 가지 관점을 드러낸다. 그 한 관점으로서 <진리의 合意理論>은 특별히 종교적, 과학적 또는 정치사회적 질을 들먹이면서 스스로 참된 의식의 대변자인 체하고 또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자의 의식을 권위주의적-훈시적으로 “거짓이라고” 배격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비판가들의 독단주의를 모면하게 해준다.⁵²⁾ 또 다른 한 관점으로서 진리개념과 이데올로기개념을 의사소통이론적으로 기초하는 일은 문예학에서 의사소통이론적 述話批判的 단초에 훌륭히 접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낳는다. 이처럼 여태까지 시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바람직스럽게 면모를 일신하려면 이데올로기비판은 이제 의사소통의 세층위를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⁵³⁾ 그것은 1) 문학외적 의사소통과정에서 형성되어 나온 허위의식이 어떻게 문학텍스트 속으로 유입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대체로 지금까지 추진된 바의, 즉 문학비평과 사회비판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되는 이데올로기비판적 실천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비판은 이를 뛰어넘어 “왜곡”들을 목표로 하여 문학적 의사소통과정 자체를 분석해야만 한다. 이 경우 그것은 무엇보다도 글쓰기를, 또 나아가서는 문학의 매개와 읽기를 기형화시키는 지배에 의해서 제약되는 강제들을 비판해야할 뿐 아니라 또한 이 강제들이 어떻게 작품속으로 유입되는지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본질적으로 문학매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들(국가, 교회, 학교, 대학, 출판업, 라디오, 신문 등등)에 대한 비판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 이 때의 비판은 부분적으로 특히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주창했던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에 접맥될 수 있다.⁵⁴⁾ 이러한 맥락에서 “통속문학”이 “고급문학”에 비해 더 많은 지배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것이 생성과 매개과정에 있어서 바로 지배에 의해 제약받는 강제들에 노출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왜곡된 의사소통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데올로기비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교유의 述話층위도 역시 고려에 넣어야만 한다. 문학적으로 매개된 내용과 문학을 매개하는 제

51) 특히 Habermas(1971):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in: J.H./Niklas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 a.M., pp.101-141 참조.

52) 궁극적 가치평가심급인 공개적 談論으로 명백히 회귀하고 있는 경우로 말하자면 Müller-Seidel(1969)(이 책은 자신의 모토와 함께 Martin Buber를 증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나는 학설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화를 나눌 줄은 안다”)과 Mecklenburg(1972), p.164ff.가 있다.

53) Mecklenburg(1972), Mecklenburg/Müller(1974); 이데올로기비판적 기술에서 하버마스를 언급하는 일이 망각될 적은 거의 없다. 그의 이론을 문예학적 용도로 진지하게 응용하는 일이 분명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도로서는 P.V. Zima(1991): Literarische Ästhetik, Tübingen, 참조.

54) Horkheimer/Adorno(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Neuausgabe, Frankfurt a.M. 1971, pp.108-150. 또한 Ch. Bürger(1973), pp.31-54에서의 개관도 참조.

도에 대한 동시적 비판으로서 이데올로기비판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의사소통형식과 조건들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역시 정당화될 수 있고 또 신뢰할만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비판은 단지 그와 같은 과제에만 만족할 수가 없다. 가치평가작업이 내용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심심찮게 빈축을 샀던 그것의 일면성을 극복하려면 이데올로기비판은 역시 그러한 기능적 가치평가를 뛰어넘어 자신을 술화 분석적 차원에서 예술적 가치평가와 접맥시키는 문제도 아울러 해결해야만 한다.

6. 문학적 가치평가의 새 지평을 위하여

문학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데올로기비판적 제이론의 형성에 따른 제반 연관관계를 놓고 다각적으로 토론이 전개됨으로써 텍스트구성, 텍스트생산, 텍스트수용, 텍스트분배, 텍스트전송의 모든 요소들이 비판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발전적인 이데올로기비판적 분석은 문학의 생성, 전파, 영향 및 기능에 대한 조건들뿐 아니라 또한 텍스트구성요소들 자체도 추적한다.⁵⁵⁾ 그런가 하면 근래에는 가치판단의 기초가 되는 “間主觀性”이란 기준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학문적 대화에 있어서 사회적·언어적 조건들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혐의를 받기 십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차라리 “間述話的 interdiskursiv” 내지 “間集團的 interkollektiv” 대화를 그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⁵⁶⁾ 이런 방식으로 학문론적으로나 이데올로기론적으로 자기무장에 철저한 이데올로기비판은 심지어 그 명칭조차도 <批判的文藝學 Kritische Literaturwissenschaft> 이라고 표명하고 나서게 된다. 이 노선에 준하는 전향적 비판적 가치평가이론 내에서는 분석의 두 측면이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어화용론적, 의사소통이론적 분석을 위한 내면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사회학적 분석을 위한 외면적 측면이다.”⁵⁷⁾ 아울러 기능적 가치평가에만 전념했던 종래의 이데올로기비판적 편향성은 예술적 가치평가를 통해 변증법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미리 주어진 관심의 연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가치평가의 단초에 있어서는 외부로부터 이데올로기로서 문학 속에 유입되는 것에 문학을 환원시키는 일은 이제 제일차적 관심거리가 못된다. 오히려 관심의 주된 방향은 내용적 가치평가와 심미적 가치평가를 어떻게 매개시키느냐 하는 문제다.

뷔르거, 슐테-자세, 메클렌부르크 등에 의하면 비판적 가치평가는 작품 속에서 이데올로

55) v. Heydebrand(1984), p. 859; M. Nutz(1976): Zur gesellschaftlichen Dimension literarischer Normen und Urteile: Anmerkungen zur Forschungslage und Problemstellung, in: P. Gebhardt(Hg.) 1980, pp. 352-387; P.V. Zima(1991), pp. 381-393 참조.

56) P.V. Zima(1991): Literarische Ästhetik, Tübingen, p. 366 참조.

57) N. Mecklenburg(1980), in: P. Gebhardt(Hg.), p. 406.

기의 미적 변형들을 추적하는 분석을 목표로 한다. 비판적 가치평가는 텍스트의 내재적 연관관계들을 겨냥함은 물론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의사소통적 합주도 주목하게 된다. 급기야 “비판적 처리방식의 양면성”은 문학의 이중성, 즉 문학이 지니고 있는 “미적 차별성”을 규명하는 작업에서 입증된다는 것이다.⁵⁸⁾ 기호학적·구조주의적 이론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적 차별성이라는 개념은 비판적 제이론 내에서 예술을 상징적으로 매개된 사회적 행위로 의미 해석하기 위한 열쇠개념이 된다. 이 예술개념을 통해서 문학은 미외적인 것들과 특수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또한 현실을 시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서도 이해되는 것이다. 문학적이고 언어적인 형식들은 텍스트외적 이념소들을 형상화하는 다양한 가능성으로서 의미해석된다. 즉 “시적 기획들, 상상물들, 이미지들은…가치평가, 선입견, …학설들…의 운반을 위한 수단으로서 투여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⁵⁹⁾

이로써 현실적인 것의 상징적 의미해석이요 또한 의미재해적이기도 한 문학개념은 예술적 가치평가와 기능적 가치평가의 매개를 위한 기반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예술적 가치평가의 과제는 본질적으로 예술의 성격을 사회적 소여성들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또는 그것들의 모델화로서 분명히 밝히는 데에 있다고 간주된다. 형식·기법·양식·이미지 등은 사회적인 것이 예술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분석된다. 메클렌부르크는 “미학적이요 사회이론적·이데올로기비판적 성찰들을 엄밀한 내재적 분석과 연결시킬 것”⁶⁰⁾을 요구한다. 심미적 가치평가의 방법으로서 문학의 사회적 실천의 계기로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처리방식들이 다 동원된다. 즉 구조적으로 기능하는 문학사회학, 텍스트언어학, 의사소통이론, 마르크시즘적 문예학 등이 그것들이다. 심미적 가치평가와 내용적 가치평가의 관계를 묻는 물음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회귀함으로써 답변된다. 대체로 문학의 고유가치를 묻는 물음들은 오직 문학의 의사소통적 의미의 층위에서만 논구된다. 따라서 문학적 형식들과 미적 구조들은 “그것들이 이데올로기가 숨기고 있는 것을 말하도록 하는지”⁶¹⁾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때 매번 비판적 가치평가의 두 층위가 구분된다. 작가에 의해 수행된 가치평가의 층위와 그리고 미적 구조들 속에 주어지있는 현실적인 것의 가치평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비평가의 가치평가층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바람직스러운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의 실천이 되려면 언제나 반복해서 심미적 가치평가와 기능적 가치평가의 관계를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뿐 아니라 또한 문학의 미적인 고유가치성에서도 구체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술타-자세에 따르면 문학은 역시 “모든 의사소통적 콘텍스트적 구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이 지닌 메시지성격으

58) N. Mecklenburg(1972), p. 98.

59) N. Mecklenburg(1972), p. 117.

60) 같은 저자, in: P. Gebhardt(Hg.) 1980, p. 401.

61) Th. W. Adorno(1958): *Noten zur Literatur I*, Frankfurt a.M., p. 77.

로”⁶²⁾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문학은 기호학적 문학이론에 의거해서 역시 고유가치의 의미론적 가치론적 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 체계의 본질적 특징은 “감각적 유희적 성격”, 즉 “비구속성과 무귀결성”⁶³⁾이라 불리는 것이다. “비판적 가치평가는 유희적 자유인 동시에 또한 구속력있는 지시연관도 되는, 즉 자율성과 타율성이라는 이중성”^{63a)}으로서의 문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은 이런 의미에서 언제나 동시에 줄거리구도, 시간구도, 공간구도 및 인물구도의 형상화로 제시된 미적 의미연속체를 목표로 해서 가치평가될 수 있다. 특히 슐테-자세는 예술적 가치평가와 기능적 가치평가의 매개를 전통적인 가치평가논의로부터 넘겨받은 <반성의 연속체 Reflexionskontinuum>라는 개념을 통해서 수행하려고 시도한다. 문제의 이 평가척도가 재해석됨으로써 문학은 개방적인, 즉 독자의 생활세계에 정향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동시에 또한 직접적인 생활세계적 귀결들을 배제하는 자기반사적 매체로서도 이해된다. <반성의 연속체>라는 기준을 통해서 문학은 “하나의 현실단면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역시 의미입장들의 비교정적인 미적 관류를 고집하는…하나의 전체”⁶⁴⁾로서 평가된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평가와 기능적 가치평가의 매개가 반성의 연속체 개념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정될 수 있는가는 결국 불분명한 채로 남는다. 슐테-자세에 따르면 <반성의 연속체> 개념을 사회사적이고 이데올로기사(史)적인 차원 만큼 확장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문학의 의사소통적 가치가 미적 가치의 척도로서 나타나기는 한다. 즉 한 작품의 가치는 포괄적이고 역사사회적인 협동체계 속에서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견해는 한 텍스트의 예술적·기법적 숙달성이 특정목적에 의해 투여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구적 메시지기능을 갖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미적 가치는 시적 담화의 자율적 기능, 즉 미적인 것의 “비구속성과 무귀결성”에서 기반을 구축한다고 본다. 바로 이 요소를 통해서 문학은 직접적인 생활 세계적 귀결들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바로 이 명백한 기능가치의 결여를 통해서 자신의 유토피아적 잠재력을 펼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兩價的 가치규정은 비판적 가치평가토론을 통해 주어진 문학의 상반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형상화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성공적인 예술형상의 가상 속에 있는 현실을 그것의 유토피아적 의미내용을 지향해서 초월하는 문학이 특히 높이 평가된다. 또 이 양가성이 비판적 문예학의 기본범주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다의성과 단의성, 자율성과 타율성, 진리계기와 허위의식 사이의 변증법적

62) J. Schulte-Sasse(²1976), p. 199.

63) 63a., 63b., 같은 곳, p. 205.

64) 같은 곳, p. 200f. 참조.

65) 같은 곳, p. 205.

긴장관계를 일의적으로 해소시키지 않고, 수수께끼같은 예술작품의 잠재적 구조성도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 수수께끼성을 밝힐 수 있는 문학적 해석 내지 문학적 가치평가가 요청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이나 메클렌부르크의 <비판적 해석>도 그렇지만 슐테-자세의 <반성의 연속체>나 지마의 <텍스트사회학>도 역시 따지고 보면 모두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비판적 가치평가의 단초에 있어서 “규범매개와 인식매개의 문학적·시적 기법에 대한 분석을 방법적으로 엄격히 통제함”⁶⁶⁾으로써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의 처리방식들을 精緻化시키고, 그럼으로써 심미적 가치평가와 내용적 가치평가의 상호 관계를 개별텍스트에서 구체화시키는 일이 평가실천의 공허한 상투성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로 그러한 공준을 실천하려고 부르짖는 목소리로 보아 무방하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바로 그와 같은 과제의 실천을 통해서 이 방법의 성과를 새롭게 시험에 부쳐볼 일이 우리 문예학계나 비평계가 맡아야 할 과업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전략제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本稿의 바램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Adorno, Theodor W. (1958): “Lyrik und Gesellschaft”, in: Th. W.A.: Noten zur Literatur I, Frankfurt a.M., pp.73-104.
- Adorno, Theodor W. (1974): Ä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 Anz, Thomas (1977): Literatur der Existenz. Literarische Psychopathographie und ihre soziale Bedeutung im Frühexpressionismus, Stuttgart.
- Anz, Thomas (1982): Wertungskriterien und Probleme literaturwissenschaftliche Ideologiekritik, in: Bernd Lenz/Bernd Schulte-Middelich(Hg.), Beschreiben, Interpretieren, Werten, München, pp.214-247.
- Apel, Karl-Otto (1971): “Szientistik, Hermeneutik, Ideologiekritik. Entwurf einer Wissenschaftslehre in erkenntnisanthropologischer Sicht”, in: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 (1971), pp.7-44.
- Bauer, Gerhard (1972): “Nochmals: historisch-materialistische Literaturwissenschaft, mit Kafka als Zeugen für den Klassenkampf”, in: alternative 15, H. 84/85, pp.102-111.
- Berger, Peter L./Luckmann, Thomas (1969): Die gesellschaftliche Konstruktion der

66) Anz, Thomas(1977): Literatur der Existenz. Literarische Psychopathographie und ihre soziale Bedeutung im Frühexpressionismus, Stuttgart, p.232.

- Wirklichkeit. Eine Theorie der Wissenssoziologie, Frankfurt a.M.
- Bloch, Ernst(1959): Das Prinzip Hoffnung, Frankfurt a.M.
- Bürger, Christa(1973): Textanalyse als Ideologiekritik. Zur Rezeption zeitgenössischer Unterhaltungsliteratur, Frankfurt a.M.
- Freud, Sigmund(1908): “Der Dichter und das Phantasieren”, Nachdruck in: S.F.: Studienausgabe, Bd. 10, Frankfurt a.M. 1969, pp.169-179.
- Freud, Sigmund(1930): “Das Unbehagen in der Kultur”, Nachdruck in: S.F.: Studienausgabe, Bd. 9, Frankfurt a.M. 1974, pp.191-270.
- Garaudy, Roger(1969): “Kafka, die moderne Kunst und wir”, Nachdruck in: Raddatz (1969), Bd. 3, pp.210-216.
- Grimm, Gunter(1973): “Rezeptionsforschung als Ideologiekritik. Aspekte zur Rezeption Lessings in Deutschland”, in: Über Literatur und Geschichte. Fs. G. Storz, hg. v. B. Hüppauf/D. Sternberger, Frankfurt a.M., pp.115-150.
- Habermas, Jürgen(1971):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in: J.H./Niklas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 a.M., pp.101-141.
- Habermas, Jürgen(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2Bde. Frankfurt a.M.
-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1971). Mit Beiträgen von Karl-Otto Apel, Claus v. Bormann, Rüdiger Bubner, Hans-Georg Gadamer, Hans J. Giegel, Jürgen Habermas, Frankfurt a.M.(Theorie-diskussion).
- v. Heydebrand, R.(1984): Literarische Wertung, in: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Bd. 4, hrsg. von K. Kanzog u.A. Masser, pp.828-871.
- Horkheimer, Max/Adorno, Theodor W.(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Neuausgabe: Frankfurt a.M. 1971.
- Klotz, Volker(1970): “Weltordnung im Märchen”, in: Neue Rundschau, H.1, pp.73-91.
- Lempert, Wolfgang(1973): “Zum Begriff der Emanzipation”, in: Emanzipation, hg. v.M. Greiffenhagen, Hamburg, pp.216-226.
- Lukács, Georg(1934): “‘Größe und Verfall’ des Expressionismus”, Nachdruck in: Lukács (1971), pp.109-149.
- Lukács, Georg(1940): “Balzac und der französische Realismus”, Nachdruck in: G.L.: Der historische Roman, Werke, Bd. 6, Neuwied/Berlin 1965, pp.431-521.
- Lukács, Georg(1952): “Eichendorff”, in: G.L.: Deutsche Realisten des 19. Jahrhunderts, Berlin(Ost), pp.49-65.

- Lukács, Georg(1955): Probleme des Realismus, Berlin.
- Lukács, Georg(1958): “Franz Kafka oder Thomas Mann?”, in: G.L.: Wider den mißverständenen Realismus, Hamburg, pp. 49-96.
- Lukács, Georg(1971): Essays über Realismus, Werke, Bd. 4, Neuwied/Berlin.
- Marcuse, Herbert(1965): “Über den affirmativen Charakter der Kultur”, in: H.M.: Kultur und Gesellschaft I, Frankfurt a.M., pp. 56-101.
- Marx, Karl/Engels, Friedrich(1967): Über Kunst und Literatur, 2Bd., Berlin(Ost).
- Mecklenburg, Norbert(1972): Kritisches Interpretieren. Untersuchungen zur Theorie der Literaturkritik, München(허창운 譯: 변증법적 문예학과 문학비평. 서울: 동서문학 1991).
- Mecklenburg, Norbert(Hg.)(1977): Literarische Wertung. Texte zur Entwicklung der Wertungsdiskussion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München(dtv) und Tübingen(Niemeyer).
- Mecklenburg, Norbert(1979): Wertung und Kritik als praktische Aufgaben der Literaturwissenschaft, in: I. Degenhardt(Hg.), Literarische Wertung, Stuttgart.
- Mecklenburg, Norbert(1980): 위와 같은 제목으로, in: P. Gebhardt(Hg.), Literaturkritik und literarische Wertung, Darmstadt.
- Mecklenburg, Norbert/Müller, Harro(1974): Erkenntnisinteresse und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 Müller-Seidel, Walter(1969): Probleme der literarischen Wertung. Über die Wissenschaftlichkeit eines unwissenschaftlichen Themas, Stuttgart[¹1965].
- Pracht, Erwin/Neubert, Werner(Hg.)(1970): Sozialistischer Realismus — Positionen. Probleme. Perspektiven, Berlin(Ost).
- Schrader, Monika(1987): Theorie und Praxis literarischer Wertung.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d -didaktische Theorien und Verfahren, Berlin/New York.
- Schulte-Sasse, Jochen(1976): Literarische Wertung, 2., völlig neu bearbeitete Aufl. Stuttgart [¹1971].
- Waldmann, Günter(1973): Theorie und Didaktik der Trivilliteratur. Modellanalysen —Didaktikdiskussion—literarische Wertung, München.
- Williams, Raymond(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 Zima, Peter V.(Hg.)(1977): Textsemiotik als Ideologiekritik, Frankfurt a.M.
- Zima, Peter V.(Hg.)(1980): Textsoziologie. Stuttgart(허창운 譯: 텍스트사회학. 서울: 민음사 1991).
- Zima, Peter V.(Hg.)(1982): Literatursoziologie/Textsoziologie, in: Dietrich Harth/Peter Gebhardt(Hg.), Erkenntnis der Literatur, Stuttgart, pp. 161-194.
- Zima, Peter V.(Hg.)(1989): Ideologie und Theorie, Tübingen.
- Zima, Peter V.(Hg.)(1991): Literarische Ästhetik, Tübingen.
- 허창운(1987²):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출판부, 서울.

〈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ie literarische Wertung als “Ideologiekritik”**Tschang-Un Hur**

Das Problem der literarischen Wertung ist ein heikles Thema an sich, da die Wertungskriterien axiologisch mehrschichtig, aber auch historisch variabel zu reflektieren und zu bestimmen sind. Besonders nach dem plötzlichen Verschwinden der ideologischen Spannung des “ostwestlichen” Hegemonialanspruchs ist nun das Orientierungsproblem für uns als einziges geteiltes Land der Erde sehr aktuell geworden.

Insofern geht diese Studie zunächst davon aus, daß die herkömmliche Ideologiekritik als praktizierte literarische Wertung im großen und ganzen den veränderten politischen Umständen nun unangemessen und kaum effektiv durchführbar ist. Daher bräuchte man nun dringend zur Ergänzung und Flexibilisierung der dogmatisierten literarischen Wertung eine innovative, literaturwissenschaftlich durchdachte Anregung von der Seite der ästhetischen Ansätze bzw. Denkweisen moderner semiotischer Provenienz.

Die Ideologiekritik hat zwar in aller historisch-materialistisch fundierten Ästhetik einen zentralen Stellenwert gehabt. Bei uns ging auch der erste Impuls derartiger Ideologiekritik nicht zuletzt in den 80er Jahren aus der Position der sogenannten Minjung-Literatur hervor. Aber die Ergebnisse der ideologiekritisch vorgehenden Wertungspraxis scheinen von jetzigen Befunden aus gesehen nicht so befriedigend ausgefallen, meistens stereotyp in Leerformeln gehalten zu sein. Um sich aus diesem Dilemma zu retten, wurden schon einige Versuche als Modell vorgeschlagen (beispielsweise Schulte-Sasses <Relexionskontinuum> oder Zimas <Textsoziologie>), der unerfreulichen Diskrepanz zwischen der sogenannten funktionalen Ideologiekritik und der künstlerisch-ästhetischen Wertung literaturtheoretisch zu begegnen. Unsere Aufgabe besteht in der Praktisierung dieses Modells. Obwohl man mit Zuversicht “Emanzipation” und “menschliche Mündigkeit” als Grundsatz der ideologiekritischen Wertung aufgestellt und sich sogar literaturdidaktisch darum bemüht hat, scheint die Produktivität der sogenannten “monologischen” Wertung dem erhofften Niveau weitgehend nicht entsprochen zu haben.

Andererseits ist die Behauptung, daß die literarische Wertung als eigene selbständige Domäne zu erklären sei, insofern hinfällig, als ihr Arbeitsfeld von den anderen etablierten

Spezialgebieten der Literaturwissenschaft schwer abzugrenzen ist, d.h. ihre Tätigkeitsart mit anderen Arbeitspraktiken mehrschichtig verflochten zu sein scheint. Daher entscheidet über die Gültigkeit in der literaturwissenschaftlichen Wertungspraxis, daß die ideologiekritischen Argumente nicht nur aus den äußeren Zusammenhängen der Texte, sondern auch aus den spezifisch literarischen Verfahren entwickelt werden.

Auf jeden Fall wird Ideologiekritik als Verfahren der literarischen Wertung und Interpretation von der Geschichtlichkeit literarischer Texte gefordert, da diese in ihrer ästhetischen Bestimmtheit an Ideologischem notwendig Anteil haben. Nach der Auffassung der dialektischen Ästhetik wird <Ideologie> als gesellschaftlich bedingtes falsches Bewußtsein schon im Begriff der Ideologiekritik vorausgesetzt. Aber diese Ideologie enthält nämlich bei sich "ein Moment des Unwahren, das in der Verzerrung und damit auch Verdeckung der Wirklichkeit liege, zugleich aber ein Moment des Wahren, das eben aus der Begründung in der Wirklichkeit hervorgehe." (Marx) Funktional wird Ideologie, die unbewußt entsteht, als verhüllende Rechtfertigung und Bestätigung von partikularen Interessen und Positionen, die sich gesellschaftlich nicht unmittelbar realisieren lassen. Gerade an dieser Stelle setzt sich z.B. Zima kritisch mit einer soziosemiotischen Auffassung der Ideologie ein. Anhand der notwendig kritischen dialogische Einstellung der bisher üblichen "monologisierenden" Ideologiekritik gegenüber könnte evt. Zimas Vorschlag eine Abhilfe liefern, daß man die Ideologie etwas differenzierter als früher im Sinne einer semantischen und narrativen Struktur auffassen und auf deren Basis eine neuartige soziosemiotische Ideologiekritik entwerfen soll. Die Frage wäre nun, wie ergiebig sich die Praxis dieser literarischen Wertung erweisen kann.